

## 대만 고송현 등 4개현에서 돼지 구제역 4만 건 재발생

지난 2월 팡호현 등 2개 양돈장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대만에서 4월에 또다시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다.

일본 위생당국에 따르면, 금년 4월들어 대만의 고송현 등 4개현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여 감염돈에 대한 살처분이 내려졌다.

돼지 구제역은 4월 15일 현동현에서 20두가 발생한데 이어, 20일 고송현에서 7두, 21일 태남현에서 5두, 28일 신죽현에서 12두 등 4개 농장에서 44두가 발생했는데, 대만 당국은 감염 돼지 모두 살처분 조치했다. 병동현에서 발생한 양돈장의 돼지 사육규모는 4,506두로 비교적 큰 규모였으나, 기타 현에서 발생한 양돈장은 사육규모가 영세한 부업규모였다.

## 말레이시아 '니파 바이러스' 로 남부지역 양돈장 79개 폐쇄 명령

말레이시아는 남부 말라카주의 일부 양돈장에서 돼지들이 치명적인 니파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는 검사결과에 따라 이 지역 79개 양돈장에 즉각 폐쇄 명령을 내렸다.

국영 베르나마 통신은 5월17일 아부 말라카

주 수석장관의 말을 인용, 보건 관리들이 이 지역 4개 양돈장의 돼지 2만7천7백마리를 도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말라카는 말레이시아에서 울들어100명 이상을 숨지게 한 2개 바이러스 질환이 가장 최근에 발병한 주다. 말레이시아는 이 두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해 약 100만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 미국 10년후 돼지고기 수출 50% 증가 전망

### - 미농무성 2008년까지 장기수급전망 발표

향후 10년간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입량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농무성은 지난 2월 22일과 23일 개최된 농업관측회의를 열고 2008년까지의 돼지고기 수급 등 농업전반에 걸친 장기 수급전망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98년 55만9천톤의

〈표〉 미국의 돼지고기 장기 수급 전망 (단위: 천톤, kg)

연도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총소비량	1인당소비량
1998	8,592	308	559	8,325	30.8
2000	8,715	299	576	8,470	30.8
2004	9,173	295	692	8,812	30.9
2008	9,860	304	850	9,336	31.7

돼지고기 수출량이 2008년에는 85만톤으로 52.1%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30만8천톤에서 30만4천톤으로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8백59만2천톤에서 9백86만톤으로 14.8% 늘어나고, 1인당 소비량은 30.8kg에서 31.7kg으로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육가공업체에 축산물 거래가격 보고 의무화 방침

### - 미농무성, 축산농가 보호 차원 법안 마련

미농무성은 양축농가들이 육가공업체에 가축을 판매할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가공업체들이 미농무성에 축산물 거래가격 보고를 의무화 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법안을 마련중이다.

미농무성은 축산물 거래가격에 관한 정보를 조사해서 발표해오고 있다. 그러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축산물 가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미농무성이 발표하는 가격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되고 있어 양축농가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육가공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가축생산자 단체(전국육우생산자협회-NCBA)의 요구에 따라 육가공업체에 축산물 구매가격 보고를 의무화 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미국양돈생산자협회(NPPC)는 그동안 방관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작년말 기록적인 돼지가격 폭락에 따라 NCBA의 움직임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지난해 양돈농가들은 돼지가격 폭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반면, 육가공업체들은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었다.

최근 주요 가축 생산자단체와 주요 패커(육가공업체)간에 육가공업체가 축산물 거래가격을 미농무성에 의무 보고하는 법안에 관한 협상을 벌여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 법안에는 미연방 식육검사법이 적용되는 육가공업체는 1

일 2회 이상 축산물 거래 가격과 양 및 거래조건을 미농무성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 E 99년 돼지고기 생산량 3.4% 증가 U 전망

EU 돼지고기 상설위원회 예측에 따르면, EU의 올해 돼지고기 생산량은 1천8백10만톤(지육기준)으로 전년대비 3.4%(60만톤)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돼지고기 시장은 연일 하락세를 보여오다 최근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3/4분기부터는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다.

EU는 작년 5월부터 재개한 수출보조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증액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수출은 EU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수출보조금을 100kg당 70유로(약 86,700원)의 높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다. 5월말 현재 EU의 돼지고기 평균시장 가격은 지육 100kg당 약 100유로 정도로 지원액은 70%에 달한다.

EU는 러시아로 8월15일까지 10만톤의 돼지고기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 판매가격을 둘러싸고 EU와 러시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송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EU는 돼지고기 재고분에 대해 민간재고 보조제도를 발동, 보관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지난 4월19일 현재 약 28만톤이 보관되고 있다. 이것은 EU 연간 돼지고기 수출량(가공품 포함 약 100만톤)의 약 30%에 달한다.

## 싱가포르 금년 11월1일까지 육류 냉장시설 의무화

싱가포르 정부는 육류의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육류의 냉장시설을 의무화 시키고 650만 싱가포르 달러(약 4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에서 돼

지에 니파 바이러스가 발병한 직후인 지난 달부터 냉장고를 보유한 상점들에게만 냉동육류를 공급하고 있다.

이 조치로 인해 싱가포르 돼지고기 판매상들은 11월1일 이전까지 3,000-6,000 싱가포르달러(약 200만~400만원)가 드는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가금육 판매상들은 1년 이내에, 그리고 쇠고기 판매상들은 18개월 이내에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중 국 복건성 등 곳곳에서 소·돼지 구제역 발생

최근 중국의 복건(福建)성, 해남(海南)성, 서장(西藏)자치구 등에서 소 및 돼지 구제역이 발생, 감염된 가축을 도살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6월 7일 알려졌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가장 구제역이 심하게 발생한 곳은 시장자치구로써, 르커즈(日喀則) 지구의 5개 지점에서 돼지 1천195마리, 소 60마리가 발병된 것으로 조사돼 현지 지방정부 당국이 이들 가축을 모두 도살했다.

또 복건성 영덕(寧德)시에서는 돼지 60마리가 발병하거나 의심증상을 보이고, 해남성 백사(白沙) 자치현의 2개 지점에서 소 60마리가 발병한 것으로 밝혀져 역시 모두 도살했다. 중국 각 지방정부 당국은 구제역 발생 지역을 봉쇄하고, 감염된 가축을 도살해 소각하는 동시에 주변주역에 대해 긴급 면역접종 등 종합적 방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는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에서 발생해 그 위험을 충분히 보인 바 있는 구제역은 사람이나 물건은 물론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에 의해 옮겨질 수 있고, 특히 일부 여행객들이 사들여 가는 갈비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로써 중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수

입을 금하고 있다.

## 일본 '한국산 돼지고기 등 수입위생조건' 개정

### -돈콜레라 발생 반경 10km 이내 지역 돼지고기 수입 금지

일본정부는 6월1일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 및 돼지고기 등의 수입위생조건을 일부를 개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이 개정된 '한국산 돼지고기 등의 수입위생조건'은 4개항을 추가한 것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등의 수입 제한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정부와 3월15일부터 이 문제를 협의, 이번에 합의를 보게 된 것이다.

일본이 개정된 4개항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일본국 가축위생당국에 발생 상황을 통지한다. 발생 종식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일본 당국에 통지한다.

②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양돈장은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지역이 아닌 곳이어야 한다. 이동제한지역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최소한 반경 10km 이내 지역으로 하고, 돼지 및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기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금지한다. 또한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최소한 반경 3k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최종 발생시의 조치가 완료된후 40일간, 기타 이동제한지역에서는 15일간 이동제한을 해제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돼지는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농장에서 생산된 것, 또는 한국정부에 의해 인가된 돼지콜레라 백신이 사육돼지 전두수에 접종되고, 동시에 출하전 최소 1년간 돼지

콜레라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④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의 생산용 시설은 돼지콜레라 이동제한지역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 농수성, '흑돈육(黑豚肉)' 표시 순수 버크셔종에 한정키로

일본 농수성은 순수 버크셔종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만 '흑돈육'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일본 농수성은 5월14일 흑돈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흑돈으로 표시할 수 있는 돼지고기는 순수 버크셔종에서 생산된 것만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흑돈육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채로 '흑돈육'이라는 표시를 하여 돼지고기를 유통시켜 왔는데, 순수종 뿐만 아니라 잡종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도 '흑돈육'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일본에서는 흑돈육이 일반 돈육보다 30-70% 비싼 가격에 팔릴 정도로 일본인들이 흑돈육을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버크셔종이 섬유가 가늘고 지방 용점이 높아 일반 돈육에 비해 연하고, 맛이 좋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현재 일본에는 12만5천두의 흑돈이 있는데, 이는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1.8%에 불과하다. 일본 식육당국은 그동안 소비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흑돈육에 관한 설문조사와 연구를 거쳐 이번에 버크셔에서 생산된 돈육에만 '흑돈육'을 표시하여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세계 USDA, 세계 사료곡물 수급전망 발표

-옥수수 생산량 1.6% 감소, 소비는 2.6% 증가

USDA의 지난 5월12일 발표에 의하면, 99/2000년 세계 사료곡물 생산은 8억8천4백68만톤, 소비는 8억8천2백39만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옥수수 생산량은 6억1백49만톤으로 지난해 98/99년 5억9천2백28만톤에 비해 1.6% 증가하고, 소비는 5억9천5백94만톤으로 98/99년 5억8천89만톤에 비해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99/2000년 옥수수 생산은 2억3천9백91만톤으로 전년비 3.2% 감소, 소비는 1억9천1백78만톤으로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프랑스 동물 부산물 가축사료 원료 사용 금량 제한 계의

프랑스 농업장관은 6월14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농무장관 회담에서 동물 부산물을 원료로 한 가축사료의 사용을 12월14일까지 6개월간 금지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EU 관리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제안은 벨기에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오염, 코카콜라 파동과 최근 프랑스의 한 주간지에서 일부 프랑스 가축사료 제조업체들이 도축된 동물에서 나온 체액과 혈액, 오수 정화조의 찌꺼기 등과 같은 비위생적인 물질을 사용하여 가축 및 애완동물의 사료를 만들고 있다는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편, 프랑스 가금류와 돼지 및 양어장에서 사용되는 사료의 약 3%가 동물 부산물을 가공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양돈**

